

과수묘목재배지역의 영농조직에 대한 인식과 참여행태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과수종묘연합회를 사례로 —

우 종 현*

A Study on the Cognition of Farming Group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al Behavior Types Shown in the Fruit Nursery Tree Growing Region : Centered on the Case of Gyeongsan Fruit Nursery Growers Association

Jong-Hyeon Woo*

요약 : 본 연구는 FTA 시대를 맞이하여 위기가 심화된 우리나라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지역단위 영농조직의 형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과수묘목재배지역의 영농조직에 대한 개별농가의 인식과 조직 내 활동에 대한 참여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조직은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 유지보다는 경제적 이익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명분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영농조직은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기초로 조직되어야 하며, 조직의 규모는 구성원간의 신뢰여부를 고려할 때 내부적 통제와 구성원 상호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적정수준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농업, 영농조직, 사회적 연결망, 신뢰

Abstract :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 of local-level farming group,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 with their crisis deepened by the coming of FT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each farming household's understanding of the farming group organization of fruit nursery tree growing region, and their participational behavior types.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the organization of farming group oriented to enhance its competence must aim to realize its economic benefits rather than to maintain the social relationship among the members of organization. Also it has to orient itself not to abstract causes but to more concrete and practical objects. In addition, the farming group must be organized based on the identity of growing farm product, and in respect of the reliability among the members, there must be a proper level of control that makes the internal control and the harmonious interaction among the members to be possible.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FTA), regional agriculture, farming group, social network, trust

1. 서론

1) 연구목적

농업은 식량생산을 통한 인간의 생존산업이며 촌락공동체의 존립기반으로 중요한 전통을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산업으로서의 비중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주목하면서 여전히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세계화 과정에서 WTO와 FTA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은 존립위기에 직면하였고 농촌은 황폐화

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은 한·미 FTA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국내 농업생산의 연평균 감소액을 6,149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도 문제이지만 현재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칠레 및 미국과 체결한 FTA 협정은 무차별적 시장개방의 서막에 불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김동원·박혜진, 2007), 농업경쟁력 제고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¹⁾.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wjh8694@yahoo.co.kr)

의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최세균, 2007). 이 때 영세소농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에서는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보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품질경쟁력 제고가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주로 가족농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하에서 개별농가 단위로 기술력에 의한 품질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소비지 시장에서는 대형소매점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라 차별화된 농산물의 생산과 더불어 안정적 공급이 경쟁력 확보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개별농가나 소규모 생산자의 지위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김기혁 역, 1999).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FTA에 대응하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농가보다 영농활동의 조직화를 통한 전문성과 경영능력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김병률, 2007; 김수석, 2007; 농촌경제연구원, 2007).

영농조직은 개별농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개별농가의 자기완결적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오래전부터 정책적 관심 대상이었다. 그 결과 가족농과 대비되는 영농조직의 경영분석과 영농조직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시켜왔다(김정호·김홍배, 1990; 김정호 등, 1993). 그러나 무한경쟁의 FTA를 맞이하여 영농조직이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직의 형성 및 조직 내 활동에 대한 참여행태와 관련한 실증적 분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한경쟁의 FTA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재적 해결방안(internal approach)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지역단위 영농조직의 형성과정과 조직특성을 분석한 후 영농조직에 대한 개별농가의 인식과 조직 내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FTA가 우리나라 농업의 전 부문에 걸쳐 부정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과수부문은 특히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수묘목재배지역으로 특화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일대의 '경산과수종묘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영농조직 실태를 고찰한 후 사례지역 연합회의 형성과 조직특성 및 개별농가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연합회의 형성과 내부조직에 대한 분석은 연합회의 결성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개별농가의 행태분석은 연합회에 소속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설문 분석대상 농가는 43농가이며 이는 2006년 10월 말 현재 전체 연합회 가입농가(371가구)의 12.0%인데,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경험이 농업경영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우중현 외, 2001)을 고려하였다. 표본농가 경영주의 최소 연령은 31세이며 최대 연령은 75세인데, 경영주의 평균연령(55.1세)보다 낮은 청장년층과 평균연령보다 높은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청장년층은 22농가(51.2%), 노년층은 21농가(48.8%)이다.

2. 영농조직의 형성과 변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주민조직³⁾이 유지되어 왔다. 이들 주민조직은 존재 기반이나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영농활동의 상호협력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직과 공동체의 통제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집단으로서의 조직으로 구분되며, 형성 주체에 따라서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자생적 조직과 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에 의해 조직된 비자생적 조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정기환, 2006).

영농조직은 농가간의 연결체로서 재배작물의 지역적 특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이나 교류가 가능하고, 상업적 영농을 위한 정보의 수용이 용이하며, 공동생산과 공동출하조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영세소농적 농업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다(김정호·김홍배, 1990).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제도화 된 영농조직은 크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작목반은 농업생산의 조직화 및 공동화의 필요

성에 따라 1969년 마을단위로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조직에 대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지원하면서 태동하였는데, 1970년 새마을운동이후 상품출하조직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는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업농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 중에서 위탁영농회사는 1994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이들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등의 생산자 조직은 영농활동의 상호협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직이며, 가입여부는 개별농가의 자발적 의사결정 결과이지만 개별농가보다 생산자 조직단위로 시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미자생적 이익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표 1은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자조직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농가(1,272,908호) 중에서 생산자 조직에 가입한 농가(251,542호)는 19.8%이다. 생산자 조직 유형별로는 작목반(80.5%)이 가장 많고, 영농조합법인(17.6%), 농업회사법인(1.9%)의 순으로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농업법인보다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기초로 한 작목반이 우리나라 농촌지역 생산자 조직의 주류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농법인의 경우 생산자들의 협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비중이 17.6%로 매우 높은 반면 영농을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은 1.9%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러한 사실은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영농을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생산자 중심의 영농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편 2000년과 비교할 때 2005년에는 논벼 작목반에서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목반 조직 비중은 낮아진 반면 영농법인의 가입 비중은 높아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특히 생산자 협업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비중 확대가 현저한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작목반 보다 영농법인의 비중이 최근 들어 확대되는 것은 WTO와 FTA 대응 전략으로써 규모화와 전문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추진 목표에 따라 영농법인 단위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산과수종묘연합회의 형성과 조직특성

1) 지역개관

연합회가 위치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일대는 영남내륙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우지역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작물의 생육기간은 긴 편이다. 전체 묘목 생산농가의 약 60%가 집중된 하양읍 대조리와 환상리의 경우 국가하천인 금호강변의 범람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수 공급이 유리하며 사질양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도 양호하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토양과 더불어 양호한 용수공급 및 배수조건, 긴 생육기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이 묘목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이러한 지역 특성은 묘목생산지로서의 오랜 역사⁴⁾를 유지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생산량에서 특화시키고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산지역에서는 1,200여 생산농가에서 전국 묘목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

표 1. 생산자조직 유형별 가입현황

(단위: 호수, %)

연도	생산자조직 유형	논벼 작목반	과수 작목반	채소 작목반	특용작물 작목반	화훼 작목반	기타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계
2000년	농가수	44,941 (16.2)	75,551 (27.3)	79,597 (28.8)	16,253 (5.9)	5,476 (2.0)	9,990 (3.6)	41,532 (15.0)	3,471 (1.2)	276,811 (100.0)
2005년	농가수	42,914 (17.1)	65,612 (26.1)	65,765 (26.1)	11,812 (4.7)	4,700 (1.9)	11,539 (4.6)	44,302 (17.6)	4,898 (1.9)	251,542 (100.0)

자료: 농업총조사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역간 경쟁 심화에 따라 그 비중이 낮아진 현재에도 820여 농가에서 400여 ha의 재배면적을 통해 전국 묘목생산량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다(경산시, 2006). 품목별 재배면적은 과수묘목(320ha)이 전체 생산량의 80%로 가장 많고 장미묘목(60ha), 관상수묘목(20ha) 등의 분포를 보이며, 연간 생산액은 3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연합회 창립이전에는 820여 생산농가 중에서 종자업 등록업체가 50개, 종자 판매업체 등록이 109개인 반면 무등록 생산자가 660여 농가로서 전체 생산농가의 약 80%는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묘목 유통시장에서 불법이었다(경산시, 2006).

2) 연합회의 형성과 조직구성

연합회 창립이전에도 사례지역 내에는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8개의 영농조합법인 및 다수의 작목반과 종묘등록업자 협의회 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체 농가의 70% 정도는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기존의 영농조직에 속하지 않은 채 개별경영에 의존하고 있었고, 지역 차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율이 매우 저조(6%)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 묘목 생산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례지역의 묘목재배 농가들은 오랜 묘목 재배관행에 따른 재배기술의 축적과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묘목의 불법 생산과 유통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대외적으로는 WTO와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과수 재배면적은 축소된 반면, 묘목시장에서의 지역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⁵⁾. 또한 정부는 'FTA기금 과수산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과수농업연합회 및 한국과수농업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묘목 생산자로 제한하였다(농림부, 2005). 이에 따라 지원대상 묘목생산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수묘목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제한되면서 개별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사례지역에서는 개별농가 단위나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단위의 종자업 등록 여부는 관계없이 지역차원에서 위기상황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지역의 종묘인 48명은 종자업 등록을 통한 묘목생산의 합법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종묘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하여 2005년 7월 25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것을 결의한 후, 8월 10일에는 창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경산과수종묘연합회를 창립하였다(경산과수종묘연합회, 2005). 이후 2005년 11월 17일에는 연합회 차원에서 종자업(묘목생산업)등록을 함으로써 연합회 내의 모든 소속농가들은 합법적인 종묘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경산과수종묘연합회, 2006). 결과적으로 경산과수종묘연합회는 생산과 유통을 포함하는 영농활동의 직접적 이해관계보다는 지역 차원의 이미지 제고와 정부 정책의 시혜를 목적으로 하면서, 개별농가간 재배작물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형성된 영농조합법인이다.

이상의 형성과정을 볼 때 사례지역 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영농조직이 농촌의 공동사회적인 특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김정호·김홍배, 1990).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영농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원 간의 면식적 관계에 기초한 상호작용의 결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을 형식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배작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형성된 주민조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구성원간에는 폐쇄적 연결망(closure of social network)⁶⁾을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 상호 간에는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사례지역의 연합회는 다양한 집단(종자업 등록 생산농가, 종자업 미등록 생산농가, 화훼업자, 종묘상)이 미시적으로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묘목생산의 합법화를 통한 지역차원의 이미지 제고 및 정부지원 시책의 수혜 필요성에 의해 소수의 지도자 그룹이 창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⁷⁾하면서 조직을 형식화 한 후 조합원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특히 기존의 종자업 등록농가도 연합회를 통해 수행되는 행정당국의 각종 지원사업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연합회의 가입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48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연합회는 1년 여 만인 2006년 10월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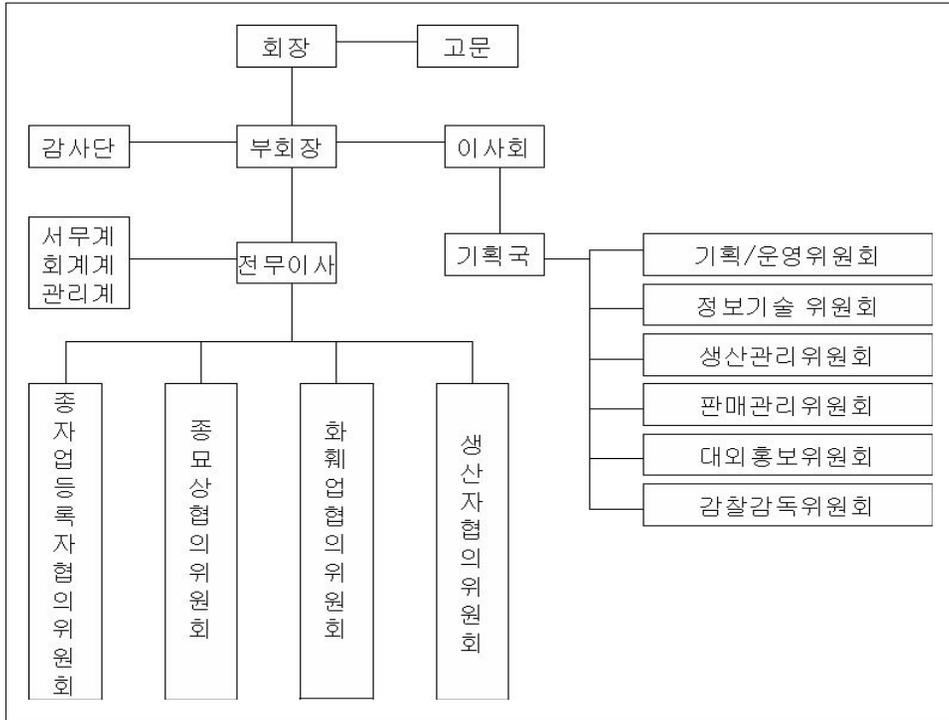


그림 1. 경상과수종묘연합회 조직편성표

371명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구성원 집단간에는 재배작물의 동질성이 미약할 뿐 만 아니라 조직의 규모⁸⁾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조직구성은 폐쇄적 연결망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간 상호작용은 미약한 편이다. 그림 1은 연합회의 조직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연합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전 사무국장)의 수직적 관계구조를 형성한 후 조합원인 개별농가는 전무이사 산하의 4개 위원회에 속해 있다. 수평적으로는 이사회 기획국에 소속된 6개의 위원회에서 연합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지원하며 감사단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이사회 기획국 산하 6개 위원회는 연합회의 운영조직인 반면, 전무이사 산하 4개 위원회는 개별농가의 소속을 구분한 것이다.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회장(1명), 부회장(2명), 전무이사(1명), 감사(2명) 및 이사회 기획국 산하 6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전무이사 산하 4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16명)에서 이루어진다. 개별농가는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합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연합회의 규모가 너무 크고 소속된 농가간에는 재배 작목이 다양하여 실제 참여는 소극적이다.

연합회의 회원은 지역 내에서 묘목관련업(생산 농가, 종묘상, 유통상)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화 된 입회금(1,000평 미만농가는 10만원, 1,000평 이상농가는 20만원)과 출자금(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5등급화)을 납부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연합회) 정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때 생산농가는 이미 지역 내에 파급되어진 소규모 생산자 협의회나 영농조합법인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의존한다.

한편 사례지역은 연합회 설립이전에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 대한 개별농가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으며, 연합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기존의 영농조직이 변화 없이 존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합회 설립 이전에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 대한 참여도가 낮았던 것은 사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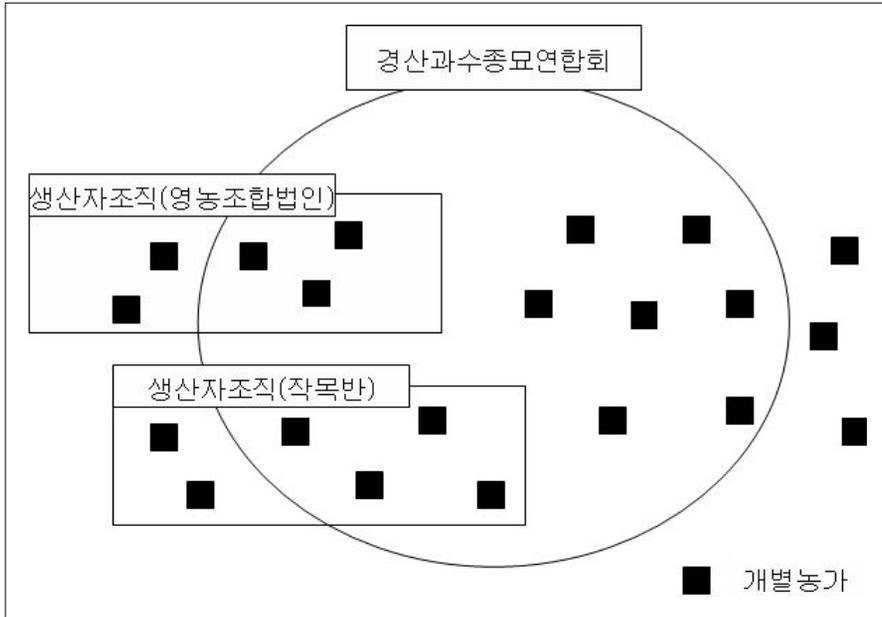


그림 2. 경산과수종묘연합회 구성 농가 유형

역 재배작물 특성상 개별농가간의 협동 작업이 거의 없고, 지역 내의 오랜 묘목재배 경험에 따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기술과 관련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연합회 설립이후에도 기존의 영농조직을 통한 개별농가간 협력이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은 연합회가 다소 추상적인 지역차원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책적 시혜를 주목적으로 했던 반면, 연합회 설립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소규모 영농조직은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조직으로써 영농활동의 실질적 협력을 우선적 목표로하였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는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사례지역 내에서는 연합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소규모의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활동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사례지역 연합회에는 연합회 외의 어떠한 생산자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은 개별농가와 연합회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자 조직에도 중복 가입한 개별농가로 구분되는데, 이들 농가 간에는 경영주의 연령이나 경영규모에서 다소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⁹⁾. 그림 2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가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4. 농업경영 특성 및 참여행태

1) 농업경영 특성

농업은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는 생산을 전제로 하지만 영농목적이 상업화할수록 출하를 포함하는 유통과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절에서는 생산 및 출하단계의 경영실태를 고찰한 후 연합회 내 개별농가간의 협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생산단계

묘목의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에 의한 살균효과를 기대하면서 미작과의 윤작 재배가 보편적이다. 생산과정은 과수, 장미, 관상수 등 묘목의 품목에 따라 상이할 뿐 만 아니라 같은 품목일 지라도 품종에 따라 집목이나 관리방법이 상이한데 크게는 파종, 집목, 집목 후의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파종은 주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과거에는 자연 상태에서 야생하는 과수의 씨앗을 직접 채취하여 파종하였으나 최근에는 부족한 노동력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파종단계에서는 특별한 기술적 축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접목은 씨앗 파종 후 1~2년이 경과한 후 실시된다. 접목 시기는 묘목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2월부터 4월까지 주로 행해지는데 많은 노동력의 투입과 더불어 높은 기술적 수준이 요구되며 현실적으로 묘목의 품질이 결정된다. 접목 작업은 나무의 외형적 특징을 결정하는 원래 묘목을 베어내고(‘접사’) 그 자리에 과수 열매의 품질을 결정하는 나무를 접목하여 비닐로 감아주는(‘마구대’) 2단계로 행해진다. 접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접사와 마구대는 2인 1조로 작업하며 숙련도에 따라 작업량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관리는 접목이후 10월까지 지속되며 방제와 제초, 순치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는 관배수를 포함하는 수량조절이 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부의 대규모 재배농가를 제외하고는 개별농가의 자체 노동력에 의해 충당된다.

이상의 생산과정 중에서는 접목단계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고 질적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 때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합회 차원 뿐 만 아니라 개별농가간에도 품앗이와 같은 노동의 교환은 발생되지 않으며 부족한 노동력은 철저하게 개별농가 단위의 임금 노동력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임금노동력은 주변의 소규모 묘목재배농가나 접목 경험이 있는 일반농가에 의해 충당되므로 이미 상당 수준의 기술 축적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생산과정에서 개별농가간 노동의 교환이 미약한 것은 우리나라 농촌의 일반적 경향이지만, 사례지역에서는 작업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개별농가 및 연합회 차원에서 노동의 교환이나 협력의 발생이 특히 미약하며, 농기계와 공동이용도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표 2는 생산단계에서의 기술협력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묘목재배는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의 생산과정과 중간재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차별화된 기술을 전제로 생산자 간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지역에서는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58.1%)이 묘목 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개별농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도 생산단계의 기술적 문제를 농가간 협력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가업을 계승한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지에서의 영농경험에 의해 마을 단위의 보편적 기술은 상당 부분이 이미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영농조직 내에서 구성원간 생산단계의 기술협력을 도모하려는 경향¹¹⁾도 확인되는데, 이들의 영농조직 내 기술협력은 지역차원의 연합회가 아니라 별도로 조직된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내에서의 협력이다.

한편 생산기술을 협력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13.9%)나 지원기관(4.7%) 등의 공식적 경로보다는 비공식적 경로인 동네 이웃(23.3%)을 통한 기술협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소속단체를 통한 경우에도 연합회가 아니라 연합회 가입이전에 소속되었던 소규모의 영농조합법인이며, 이들은 단체 가입이전부터 이미 교류를 형성하고 있던 동네 이웃이었다. 이와 같이 연합회를 통한 생산단계에서의 기술협력이 미약한 것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이 실질적인 영농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직되었고, 연합회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한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농업기술지원센터 등 공식적 경로를 통한 생산기술협력이 극히 미약한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지역단위의 관행에 의해 파급되는 일반적 경향(우종현, 2006)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표 2. 생산기술 협력 농가수

(단위: 호수, %)

구 분	스스로 해결	동네 이웃	소속단체	지원기관 (농협, 기술센터)	계
청장년층	15(68.2)	5(22.7)	2 (9.1)	0(0.0)	22(100.0)
노년층	10(47.6)	5(23.8)	4(19.1)	2(9.5)	21(100.0)
계	25(58.1)	10(23.3)	6(13.9)	2(4.7)	43(100.0)

표 3. 출하시 협력 여부 농가수

(단위: 호수, %)

구 분	협력한 적 있음	협력한 적 없음	계
청장년층	11(50.0)	11(50.0)	22(100.0)
노년층	10(47.6)	11(52.4)	21(100.0)
계	21(48.8)	22(51.2)	43(100.0)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출하단계

출하를 위한 묘목의 굴취 및 선별 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며 운송비는 판매업자나 소비자가 부담한다. 출하 시기는 낙엽이 지고 난 10월 하순 경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로 발생되는데, 특히 2월부터 4월까지 집중되고 있다.

출하유형은 크게 도매출하와 소매출하 그리고 직접 판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도매출하는 생산자가 현지의 종묘상이나 현지를 방문하는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출하하는 유형인데 전체 출하량의 60~7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도매출하의 경우 시장가격의 50~60% 정도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되지만 출하물량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재고부담 및 보관료와 운송비 등의 제반비용을 고려할 때 사례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출하유형이다.

소매출하는 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의 농장에서 현장 판매하는 유형으로서 전체 출하량의 20~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는 수십 주 단위에서부터 수백 주 단위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는데, 최근에는 수요지 과수 작목반 단위의 직거래가 발생되면서 1만주 이상 대량의 소매출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소매출하의 경우 대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단골거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도매출하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거래 물량의 안정성 확보에서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 판매는 생산자가 현지가 아닌 소비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출하하는 형태로서 전체 출하량의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은 높게 형성되지만 판매 가능한 양이 많지 않고 노동력의 직접 투입이 요구되므로 소규모 생산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출하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출하유형을 통해 사례지역 내에서는 연간 4,000만 주 정도(300억 원)의 묘목을 생산/유통시키는 것으로 추정(경산시, 2006)하고 있지만, 정확한 출하량과 유통경로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이는 묘목의 출하가 노동력 등의 여건을 고려한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철저히 의존하기 때문인데, 장미묘목의 경우에는 로얄티 문제와 관련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표 3은 묘목출하와 관련하여 개별농가의 협력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사례지역(43표본농가)에서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수익성(36가구, 83.7%)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불만 요인 중에서는 낮은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32.6%(14가구)를 차지할 만큼 출하와 관련한 문제는 민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목출하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개별농가간에 협력해 본 경험이 있는 농가(48.8%)보다는 협력한 경험이 없는 농가(51.2%)의 비중이 더 높다. 출하를 협력해 본 경험이 있는 농가의 경우에도 연합회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개별적 관계에 기초한 농가간의 협력이었으며,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협력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협력이 우세하였다. 이는 생산자 조직의 내부적 통제에 의해 상품의 생산과 출하가 이루어지며, 상품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경향(우중현·박순호, 2001; 우중현, 2006)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출하단계에서 연합회 내 개별농가간의 협력이 미약한 것은 사례지역의 오랜 영농경험 및 출하 상품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즉 묘목생산농가는 대체로 오랫동안 사례지역 내에서 영농활동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도매출하 뿐 만 아니라 소매출하의 경우에도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는 단골거래가 형성되어 있다¹²⁾. 또한 묘목은 상품의 표준화가 곤란하고 상품 품질의 검증에도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출하과정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개별농가 단위의 단골거래가 주류를 이루면서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조직의 내부 결속력이 약한 특징을 보이면서 연합회를 통한 상품의 공동 출하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출하와 관련한 개별농가간 협력관계에서는 경영주의 연령과 개별농가의 연합회 내 소규모 영농조직 가입여부가 부분적으로 출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된다. 경영주의 연령과 관련하여 노년층에서는 그들의 오랜 영농경험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협력한 경험(47.6%)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주의 소규모 영농조직 가입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경영주가 지역단위의 연합회 외에 소규모의 다른 영농조직에 가입한 9농가 중에서는 66.7%인 6농가가 출하와 관련하여 협력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반해 연합회 외의 다른 영농조직에는 가입하지 않은 34농가 중에서는 47.1%인 16농가만이 묘목출하와 관련하여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젊은 경영주들의 경우 비교적 결속력이 낮은 지역단위의 연합회 외에도 재배작물의 동질성에 기반한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고, 조직된 영농조합법인은 연합회와는 달리 강한 결속력과 내부적 통제에 의해 생산단계에서 차별화한 후 출하단계에서의 협력을 통해 변화된 시장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2) 연합회 참여 형태

영농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인 개별농가가 상호협력하면서 조직의 규범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연합회에 소속된 개별농가는 회비 납부와 함께 연합회의 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표 4는 연합회 모임 및 활동의 참가 정도를 경영주 연령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합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25.6%)하거나 거의 대부분 참석(30.2%)한다고 대답한 적극적 참여자가 절반을 상회(55.8%)하는 반면,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9.3%) 전혀 참석하지 않는(11.6%) 소극적 참여자의 비율은 20.9%를 형성한다. 이를 경영주 연령대별로 보면 청장년층에서는 적극적 참여자(40.9%)가 소극적 참여자(31.8%)에 비해 약간 많은 편이지만, 노년층에서는 적극적 참여자(71.4%)가 소극적 참여자(9.5%)보다 현저히 많다. 따라서 사례지역 내에서는 연합회 활동에 대한 개별농가의 참여가 대체로 활성화 되어 있지만, 경영주가 젊은 연령층일수록 연합회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연합회 활동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5가구를 제외한 후, 연합회 활동의 참가이유를 경영주 연령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합회 활동의 참가 이유로는 정보획득의 목적이 가장 높은 비중(71.1%)을 차지하며,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15.8%)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표 4. 경영주 연령별 연합회 활동 참가 정도

(단위: 명, %)

구분	빠짐없이 참석	거의 대부분 참석	보통	거의 참석 않음	전혀 참석 않음	계
청장년층	4(18.2)	5(22.7)	6(27.3)	4(18.2)	3(13.6)	22(100.0)
노년층	7(33.3)	8(38.1)	4(19.1)	0 (0.0)	2 (9.5)	21(100.0)
계	11(25.6)	13(30.2)	10(23.3)	4(9.3)	5(11.6)	43(100.0)

표 5. 연합회 활동 참가 이유

(단위: 명, %)

구분	안면 때문	정보 획득	불참시 손해	연합회 간부	계
청장년층	4(21.0)	12(63.2)	1 (5.3)	2(10.5)	19(100.0)
노년층	2(10.5)	15(79.0)	2(10.5)	0 (0.0)	19(100.0)
계	6(15.8)	27(71.1)	3(7.9)	2(5.2)	38(100.0)

* 연합회 활동에 전혀 참석 않는 5명은 제외

다. 그러나 불참시 손해 볼 것(7.9%)을 우려하거나 연합회 간부(5.2%)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된다.

개별농가의 연합회 활동 참가 정도와 참가 이유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정보획득의 목적이 매우 뚜렷하면서도 실제로 연합회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은 연합회가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획득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합회 조직과정에서의 특성 및 조직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다¹³⁾. 즉 사례지역의 연합회는 지역에 기초한 영농조직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 실현이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도모하기 보다는 다소 추상적 목표인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정치적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내부적으로는 연합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조직구성원 간에는 폐쇄적 연결망(closure of social network)을 형성하면서도 상호작용이 약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농조직에 대한 참여목적이 명분보다 실리 추구를 중시하면서, 이러한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영농조직 내에서의 규범과 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4농가를 연합회 외의 다른 생산자 조직 가입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개별농가 경영주가 지역단위의 연합회 외에 다른 생산자 조직에도 가입한 9농가 중에서는 66.7%인 6농가가 연합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반면 다른 생산자 조직에는 가입하지 않고 연합회에만 가입한 34농가 중에서는 절반 정도(52.9%)인 18농가만이 연합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미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 가입한 농가일수록 새롭게 형성된 지역단위의 영농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가 높은 것은, 경영규모를 고려한 개별농가의 내부적 특성 외에 학습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¹⁴⁾. 즉 이

전에 다른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해 본 경험이 있는 개별농가의 경우, 구성원은 활동 참여를 포함하여 조직의 규범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이전의 생산자 조직 경험을 통해 이미 학습하였기 때문에 연합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미약하더라도 활동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영농조직은 농업생산의 공동조직을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개별농가가 지닌 농업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김정호·김홍배, 1990). 표 6은 연합회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사항에 대한 개별농가의 기대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개별농가는 연합회의 장래 역할에 대해 유통과정에 대한 개입(34.9%), 생산기술의 보급(11.6%) 및 다양한 시장정보의 제공(11.6%), 회원 친목도모(2.3%) 등의 순으로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희망이 우세하고 회원 친목도모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사실과 더불어 특히 청장년층에서 생산기술의 보급이나 유통과정에 대한 개입을 희망하는 경영주가 많다는 사실은 장래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영농조직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역에 기초한 자생적 사회집단이 공동체 유지의 기초를 형성해 왔지만(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농업의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공동체 유지의 수단보다는 구체화된 이익추구를 전제로 할 때 영농조직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과정별로는 생산단계보다 시장정보의 제공을 포함하는 유통단계에서 연합회 차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례지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묘목생산 단계에서는 지역 내에 보편적으로 확산된 재배기술이 이미 축적되어 있으며, 새로운 생산기술의 개발과

표 6. 연합회의 장래 역할 기대

(단위: 명, %)

구분	생산기술보급	유통과정개입	다양한 시장정보	회원 친목도모	별로 없음	계
청장년층	4(18.2)	8(36.4)	1 (4.5)	1(4.5)	8(36.4)	22(100.0)
노년층	1 (4.8)	7(33.3)	4(19.0)	0(0.0)	9(42.9)	21(100.0)
계	5(11.6)	15(34.9)	5(11.6)	1(2.3)	17(39.6)	43(100.0)

보급에는 연합회 차원보다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이웃이나 소규모의 전문화된 생산자조직 단위가 훨씬 효율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출하단계는 개별농가가 상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지역 내 출하경로의 20~30% 정도를 차지하는 소매출하의 경우 개별농가의 접근성에 따라 판매량은 큰 차이가 난다. 또한 지역 내에서 60~70%를 차지하는 도매출하의 경우에도 생산자와 중간 거래상 간에는 단골거래를 형성하면서 생산농가간의 가격 격차가 발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접근성에 따른 판매량의 차이와 가격차는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지만 개별농가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지역적 차원의 해결수단으로써 연합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연합회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이 별로 없음(39.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합회의 형성과정에서는 종묘의 합법적 생산과 지역이미지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농가가 적극적으로 가입했지만, 그 이후의 운영과정에서는 연합회가 영농활동의 동질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합회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개별농가의 참여는 간접적이며 제한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연합회는 폐쇄적 연결망을 형성하면서도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뢰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는 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성장의 그늘에서는 농업의 지위가 하락하였고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고, WTO와 FTA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황폐화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에 과수묘목재배지역의 영농조직에 대한 개별농가의 인식과 구성원의 참여행태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영

농조직이 농촌의 공동사회적인 특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이었던 것(김정호·김홍배, 1990)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묘목재배농가의 경우 묘목 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는 오랜 재배경험에 따라 암묵적 지식이 축적된 개별농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호 협력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지원센터 등의 공식적 경로보다 동네 이웃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기술협력이 주류를 이루며, 연합회 차원의 기술협력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묘목출하와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의 영농조직을 통한 출하 협력 체계가 아직은 미약하다. 특히 부분적이거나 상호 협력하는 생산단계와는 달리 출하단계에서는 개별농가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연합회 차원의 공동출하는 전혀 없다.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연합회 차원의 협력이 이처럼 미약한 것은 영농조직의 규모가 너무 커서 재배작물의 동질성이 미약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연합회의 운영이나 개별농가의 연합회 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경영주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데, 젊은 연령층일수록 추상적인 명분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으로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연합회에 대한 장래의 역할 기대가 낮은 것은 영농활동의 이질성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조직의 규모가 크고, 운영과정에서는 조직 내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구성원간 신뢰가 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확인하면서 농촌지역 사회자본¹⁵⁾으로써 영농조직의 형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방화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영농조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정호·정기환·박문호, 1993).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농조직은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지역기반의 영농조직이 형성되더라도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구성원간 내부 결속력이 약하고 상호작용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조직의 형성과정에서 지역기반에 함몰되어 소속

농가의 동질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재배작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조직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농조직이 단위지역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실무커뮤니티(communities of practice)의 차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실무네트워크(networks of practice)의 구축¹⁶⁾을 지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단위의 동질성에 기초하였더라도 영농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trust)에 기초한 협동과 협력을 전제로 한다(김정호·김홍배, 1990). 그러나 영농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구성원의 공통적인 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있고, 익명성이 확대되면서 상호작용의 발생은 미약하다. 이럴 경우 영농조직 내 구성원은 집단 내에서의 규범과 행위에 대해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전제로 지역에 기반하여 형성된 영농조직은 구성원 간에 충분한 상호작용과 신뢰구축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크기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에 뿌리 내려진 다양한 생산자 조직 간에는 기능의 중복에 따른 갈등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註

- 1) 정부에서는 한·미 FTA 추진에 따른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농업 내부의 질적 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개별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나 폐농지원, 그리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단계별 관세인하, 계절별 차등관세부과)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을 갑작스런 FTA의 충격으로부터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2) 경산과수종묘연합회의 형성과정과 관련한 심층면담은 연합회 창립당시의 사무국장 및 현재의 전무이사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 4일, 10월 16일, 11월 4일, 2007년 5월 14일, 5월 21일 등 5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개별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6년 10월 4일의 예비조사에 이어 같은 해 10월 28일에 실시하였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의 '인문지리교재 및 조사법' 수강자들이 참가하였다.
- 3) 자급적 영농의 전통사회에서는 지역에 기초한 자생적 집단이 우세한 특징을 보이며, 영농조직보다는

마을단위의 대동계(契)와 혈연집단으로서의 문중조직 등 사회집단조직이 공동체의 규범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그러나 농촌사회에 뿌리 내려진 다양한 형태의 주민조직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선택적 이출이 심화되었고, 영농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주민의 자생적 사회조직은 급속히 와해된(정기환, 2003) 반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비자생적 이익집단으로서의 영농조직이 본격화되었다.

- 4) 묘목생산과정에서는 적절한 용수의 공급과 배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산지역에서는 1912년 하양읍 금락리에서 일본인 고바야시(小林)의 뽕나무 묘목생산을 우리나라 최초의 묘목생산 기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후 1914년 일본에서 사과묘목(국광, 홍옥, 골덴)이 도입/생산 되었으며, 1920년에는 과수접목과 재배기술의 습득이 하양읍 환상리, 대조리, 진평면의 부기리, 보인리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후 대구와 대구 주변의 하양, 금호, 영천 등지가 사과의 주산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경산시 원예특작과).
- 5)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대 과수의 우리나라 전체 재배면적을 보면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998년 126,987ha를 최대로 하여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5년도에는 107,289ha이다. 한편 30여 년 전부터 묘목생산지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충청북도 이원지역은 국토의 중앙부라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묘목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역 인지도와 묘목 생산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 6)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강조하였는데, 조직 내 구성원들이 모두 서로 알고 있으며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를 폐쇄형 연결망(closure of social network)이라 한다. 이러한 폐쇄형 연결망 구조 속에서는 구성원들 상호간에 의무 이행과 감시가 가능해 저 구성원들 사이에는 강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정기환, 2003 재인용).
- 7) 실제로 창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연합회 창립이전에 이미 개별농가 단위나 혹은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종묘업 등록을 필하여 합법적 생산과 유통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연합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개별농가의 직접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이미지 제고가 주된 목적이었다(연합회 사무국장).
- 8) 규모면에서 볼 때 재배작물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 적게는 5농가부터 많아도 15농가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371농가로 구성된 연합회는 매우 큰 규모이다. 한편 연합회에 소속된 농가회원(371명)은 경산지역 전체 과수묘목 재배농가(820여 농가)의 45% 정도를 차지하는데, 미가입 농가의 대부분은 경영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경영주가 노령화된 경우가 많고, 지역적으로

나무 멀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연합회 사무국장). 따라서 연합회의 규모가 단기간에 더 이상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 9) 전체 연합회 구성농가(371가구) 중에서 다른 생산자 조직에도 가입한 농가의 비중이 30% 정도인 반면, 다른 생산자조직에는 가입하지 않고 연합회에만 가입한 농가가 70%로 훨씬 많다. 그러나 연합회 결성 이전부터 소규모의 생산자조직(특히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경영주가 젊은 연령층이고,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경영규모의 확대를 도모하는 대농가가 많은 편이다(연합회 전무이사). 연합회의 구성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8개의 영농조합법인 소속여부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는데, 개별농가는 연합회 가입이후에도 영농조합법인의 중복 가입과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43 사례농가 중에서는 연합회 외의 다른 생산자조직에 가입한 농가가 9가구이다.
- 10) 재배기술과 관련한 불만이 적은 것은 현재의 묘목재배와 관련한 기술이 이미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 축적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새로운 재배기술의 도입이나 작목의 선택에 소극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청장년층 분류된 농가 중에서는 단 1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업을 계승하였거나, 현지에서의 영농경험이 5년 이상 된 농가이다.
- 11) 묘목은 품목과 품종에 따라 생산과정이 상이함으로 일반화는 곤란하다. 사례지역은 일본으로부터 묘목재배 방법이 전파되면서 야생능금을 파종한 1년 후 왜성대목(矮性臺木)을 접목하고, 왜성대목 접목 1년 후 다시 사과와 품종에 접목하는 이중접목묘(二重接木苗)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유립식인 자근묘(自根苗)는 왜성대목을 자체적으로 뿌리내림으로써 뿌리가 튼튼하고 이중접목묘에 비해 과수의 결실이 양호하다고 평가받지만 재배과정에서는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구한다. 현재 연합회에 소속된 8개의 영농조합법인 중 하나인 '경산키낮은사과묘목영농조합법인'은 40대 초반의 법인대표를 포함하여 5가구로 구성되었는데, 지역 내에서 보편화된 '이중접목묘' 대신 '자근묘'를 통해 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높은 수준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12) 현지에서 40년 넘게 묘목농사를 짓고 있다는 개별농가 경영주(남, 71세)의 증언에 따르면 '사례지역은 오랫동안 묘목재배와 판매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농가에서는 기존의 단골거래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내에는 전문 판매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농가 간의 출하협력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
- 13) 장미묘목재배를 위주로 하는 40세의 경영주(남, 환상리)는 '같은 지역 내에서 묘목을 재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합회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연합회 내에는 다양한 품목의 묘목재배 농가가 있어서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는 자신이 소속된 장미영농법인으로부터 얻고 있다. 또한 연합회가 너무 크고 지역도 넓어서

회원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연합회의 모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

- 14) 연합회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경영주들은 대체로 '경영규모가 작아서 연합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또는 '자기를끼리만 하는 것 같아서' 등 운영방법과 관련한 이유가 많다. 그러나 연합회 가입이전부터 과수묘목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던 한 경영주(남, 48세)는 '연합회가 영농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연합회 회원이기 때문에 연합회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술.
- 15)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경제활동은 경제적 합리성 뿐 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규범과 관습을 포함하는 경제 주체들 간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통일되고 명확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이철우, 2005). 푸트남(Putnam, 1993)은 '참여자의 협력을 통하여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조직의 특질'로,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즉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공유된 일련의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의 존재'로, 정기환(2003)은 '지역사회의 사회집단 또는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 또는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 16) 실무커뮤니티(communities of practice)란 학습커뮤니티 중에서도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상적 대면접촉을 갖는 집단적 네트워크를 말하며, 실무네트워크(networks of practice)란 같은 지역이나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서로 직접적으로 함께 일을 하지는 않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그러나 종종 실무네트워크가 실무커뮤니티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이철우, 2005).

文獻

- 경산과수중요연합회, 2005, 경산과수중요연합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자료.
- 경산과수중요연합회, 2006, 경산과수중요연합회 제1차 정기총회자료.
- 경산시, 2006, 경산 중요산업특구 계획(안).
- 김기혁 역, 1999, 서유럽의 농업변화, 한울아카데미.
- 서울(Bowler, I. R., 1996, *Agricultural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김동원·박혜진, 2007,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김병률, 1997,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와 생산자조직의 대응방향, 농촌경제, 20(3), 31-47.
- 김병률, 2007, 후계인력 육성과 조직화가 경쟁력, KREI논단.
- 김수석, 2007, 농업경영체의 발전방향, KREI논단.
- 김수옥 편저, 1994, 한국과 일본의 농촌, 범론사, 서울.
- 김정호·김홍배, 1990,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김정호·정기환·박문호, 1993,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농림부, 2004,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 농림부, 2005,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FTA 기금 과수산업지원사업).
- 우중현·박순호, 2001, 과수재배지역의 생산유통체계와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 -청도군 놀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의 작목반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1-17.
- 우중현, 2006, 지역농업의 혁신환경과 발전방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수박재배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94-107.
- 이철우, 2005, 지역혁신 기제로서의 사회자본 창출 방안(지역분권, 지역혁신 그리고 지역경쟁력,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61-74.
- 정기환, 2003,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존재 양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정기환, 2006,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최세균, 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과제, KREI논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국농정 50년사.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 황의식·조명기·박재홍·조경출, 2004, 산지유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97.
- Porter, M., 1998, *On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ambridge, MA.

(접수 : 2007. 8. 30, 채택 : 2007. 9. 20)